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 공동정범 책임 유효



김지희
의료법
변호사

손에 잡히는 법

최근 한 연예인의 '갑질 논란'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로 번지면서 연예계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연예인들이 암암리에 무면허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적 책임 여부가 뜨거운 논쟁 거리로 떠올랐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항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즉,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대상이다.

2020년 개정된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자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무면허 시술을 시지하거나 주선한 자 역시 법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시술을 받은 환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처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환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주선하거나 영리 목적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예전에 인이 무면허 시술을 홍보하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와 비의료인의 공동관계에서 의사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도3736 판결). 개정된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의사가 직접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비의료인과 공모해 이를 가능하게 했다면, 위 의사의 처벌 규정을 의료법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보건범죄단속법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의료법 규정과 보건범죄단속법 규정이 병존관계에 있으며, 보건범죄 단속법은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을 갖고 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사도 공동정범으로서 보건범죄 단속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의료법에 신

설됐더라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상 중대 범죄로서 별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대상이 의사라 하더라도 공범으로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법원은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의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하는 행위'의 해석을 통해 법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확대했다.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고, '업으로 하는 행위'도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본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와 비의료인의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보건범죄단속법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한 사례다. 이는 의료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를 공고히 한 판례로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실히 반영한 판결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바른

오늘의 운세

1월 12일 (음 11월 2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관음 기도 날이나 신년 기도를. 48년생 운이 악할 때는 잠시 복지부동하자. 60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적다. 72년생 가정사람도 내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순리. 84년생 과거 베풀어준 공덕이 돌아온다.



37년생 뒤늦게 이직이 웬 밀인가. 49년생 믿는 도끼에 벌등 찍히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 61년생 오후에 음주는 절대적으로 사양해야 할 것. 73년생 친구 만나 돈 자랑하지 않도록. 85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니 반갑다.



38년생 꿈을 안 밟을 수도 없으니 결단이 필요. 50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지출도 꼼꼼히 살펴라. 62년생 계산에 차이가 있다. 74년생 아침부터 사소한 사건으로 무능을 실감한다. 86년생 부모에게 돈을 바리지 말아야 덜 슬프다.



39년생 문서운이 길하니 매매가 될 것이다. 51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가는 것이 세상 이치. 63년생 주식 투자는 내일 다시 신중하. 75년생 인색하다가 체통 잊고 대화가 단절된다. 87년생 뜻밖의 횡재수가 있다.



40년생 외부의 감언이설을 주의. 52년생 소금 장사 나가는데 비가 오는 격. 64년생 이웃의 도움이 있으나 그래도 자중할 것. 76년생 수입이 늘어나니 품위가 달라지는 현실. 88년생 어려움이 생겨도 정신일도 하사 불성이라 했다.



41년생 생각만큼 진전이 없다. 53년생 영업에 이익이 생기고 활동력이 일어난다. 65년생 승진의 기쁨이 있다. 77년생 과거의 노력은 있었겠으나 여유 있을 때 베풀어야 할 듯. 89년생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는 들통 나서 모두 잊게 된다.



42년생 작은 고민이 있지만 문제는 해결된다. 54년생 절이 삶으면 절이 때날 수 있으니 종이 떠나라. 66년생 신경질보다는 대화로. 78년생 능력은 있으나 발휘가 어려운데. 90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 보는 것이.



43년생 삶의 질은 예습에서 결정되니 노력하라. 55년생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 67년생 무리한 행동보다는 계획 하에 실행을. 79년생 노새노새 젊어서 노새 하다 차후에 슬픔만 남는다. 91년생 근거 없는 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니 자제.



44년생 조상님의 기운으로 삶의 질이 평온. 56년생 인생은 언제나 놓는 것이 아니라. 68년생 차 바꾸는 것은 지출이 늘어난다는 의미. 80년생 무엇보다 운 좋은 것이 최상이다. 92년생 잘못된 투자로 다가올 미래에 외회내빈 되지 않도록.



45년생 목표지점에 가야 하는데 길이 멀다. 57년생 생각을 바꾸면 답도 보인다. 69년생 일이 많아지지만 도와주게 되니 초조함을 버려라. 81년생 돈 달라는 형세로 고민이 많겠으나 해결책은 어디에도. 93년생 투자의 결실이 보인다.



46년생 신정이 엊그제 지났는데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쌔운다. 58년생 죽고우(竹馬故友)도 신용에서 나온다. 70년생 용띠와 남의 협심하지 마라. 82년생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에 힘쓰자. 94년생 입춘대길 경양다경이니 마음을 포근히 하자.



47년생 나이가 들어 운전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니. 59년생 동료와 힘을 합치니 조작이 강화된다. 71년생 남녀 이상에 대해 삼각관계 만들지 않도록. 83년생 고목에 꽂이 피듯 재기할 수 있다. 95년생 삼재라도 내 뜻대로 되는 복 삼재이다.

김상회의四季

오복



김상희

기자

기자